**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엑 사라윳 입니다. 저는 25살이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랐습니다. 제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섯명 입니다.

저는 AEU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HRD 센터에서 한국어, 자바, 웹디자인,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Git, PostgreSQL, UX/UI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축구 경기와 파티를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5개월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5명이 한팀으로,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React.js, 백엔드는 Spring Boot,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을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저는 소개 영상을 제작하고, 관리자 대시보드의 UX/UI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HRD센터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HRD 센터 덕분에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기본 과정을 졸업한 후, 코사인에서 비투비 알앤디 팀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는 카드 보고서였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있는 비즈플레이의 비투이 복지사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겨울이라서 정말 신났고, 처음으로 먹은 음식은 김치찌개였습니다.

5개월 동안 부산에 있었고, 그 후 서울로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타워, 남포동에 갔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친구와 함께 서브웨이 햄버거를 먹었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벽화 마을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십원빵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올림픽공원, 한강, 타임스퀘어, 롯데타워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커피숍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게임 같은 최신 기술을 보러 타임스퀘어의 일렉트로마켓에 갑니다.

제 취미는 코딩, 영화와 유튜브 시청, 음악 감상, 게임하기 입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우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